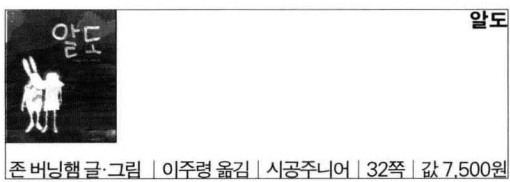


3월입니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달이지요. 얼마 전 학사모를 쓰고 대학 졸업을 한 형과 누나는 취업준비로 바쁠 태고, 어린이들은 새학기 새 노트를 준비하고 새학년 맛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마음은 기쁨 반 두려움 반이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친구들이 함께할 테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실은 물론 책 속에서도 특별한 친구들이 손을 흔들고 있을 테니까요. 엄마, 아빠는 《어린왕자》,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책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나와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털어놓기 힘든 고민도 들어주는 친구, 친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책들을 펼쳐봅시다.



< 친구를 만나는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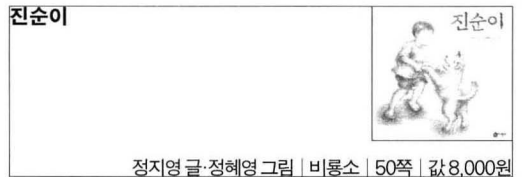
《알도》. 펼칠 때마다 마음 한켠을 아프게 만드는 책입니다. 특별히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히 못나지도 않은 평범한 주인공 여자아이의 표정에는 알수 없는 고민이 가득합니다. 엄마랑 외식도 하고, 놀이터에도 가지만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은 좀처럼 떨쳐 버릴 수가 없지요. 그런 주인공을 미소짓게 하는 아주 특별한 친구는 '알도'라는 토끼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알도가 모든 아이들의 친구가 아니라 주인공 아이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친구라는 사실이지요. 친구들이 괴롭히거나 힘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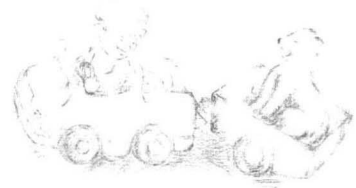
일이 생길 때 언제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친구, 잠자리에 들 시간마다 책을 읽어주는 친구. 이 친구 덕분에 주인공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아주 특별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알도는 환상 속 친구일 뿐입니다. 환상적인 노란색 배경 아래 알도가 밀어주는 그네를 타는 주인공의 모습이 웬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이유도 여기 있을 겁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우리 아이가 이 책의 주인공처럼 환상 속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 아닌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새학기가 되었다고 전에 만나던 친구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내는 어린이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진순이 이야기를 펼쳐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로부터 친근감이 느껴지는 '진순이'는 개 인형입니다. 주인공은 아빠가 어느 날 길에서 데려온 '진순이'를 만나면서 엄청나게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진순이는 갖고 노는 친구가 아니라 함께 놀수 있는 친구입니다. 주인공은 진순이를 살아있는 친구로 생각하면서 털 속에 얼굴을 물어보고, 손을 활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주인공은 번쩍번쩍 레이저를 쏘는 힘센 '로보'를 보고 진순이에게 싫증을 느끼거든요. 결국 진순이는 다른 인형들 속에 버려집니다. 이 책에 나오는 진순이는 살아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즐겨 갖고 노는 장난감 개입니다. 주인공은 새로운



장난감 앞에서 현 장난감을 나몰라라 버리는 어린이들 모습을 닮았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 한번쯤 갖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 해서 함께 지냈던 친구를 멀리하진 마세요. 새 친구와 만드는 추억만큼 진순이와 함께 뒹굴며 장난치던 즐거운 추억들 역시 소중한니까요. 친구를 멀리하게 된 나 자신을

반성하면서 《진순이》를 펼쳐보세요. 그리고 서머서 먹해진 친구네 교실에 가서 옛 친구와 인사하세요.

**삐비이야기**

송진현 글·그림 | 창비 | 40쪽 | 값 9,000원



지금이야 모든 아이들이 '왕따'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몸이 불편한 아이나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곤 했습니다. 말이 없거나 몸이 안 좋은 친구에게 먼저 말 한마디 건네면 좋을 것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친구와 놀지 않으려고 애썼지요.



이 책을 보면 그렇게 관심 밖으로 밀려나 소외감을 느끼던 친구 얼굴이 떠오릅니다. 봄이 올 때마다 측백나무 숲에 나타났던 '삐비'. 아이들은 이상한 추측만 갖고 삐비를 피해다닙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우연한 기회에 숲에서 삐비와 친구가 되지요. 말은 한 마디도 안 했지만 둘은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느끼면서요. 하지만 주인공이 학교에 가면서 둘 사이는 다시 멀어집니다. 주인공은 삐비에게 오히려 상처만 준 게 아닐까 후회하고 있지 모릅니다.

세상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고 외톨이로 지내는 삐비와 주인공의 안타까운 만남을 섬세한 그림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감성을 울리는 섬세한 그림들이 슬픔을 두배로 전하지요. 같은 반 친구 중에 유난히 말이 없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물론 그 우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약속을 나 자신과 먼저 해야겠지요.

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라는 노래가 있지요. 제주도 꼬리따기 노래를 바탕으로 구성한 이 책에는 제주도에 사는 귀여운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물질나간 엄마를 기다리는 주인공은 엄마를 기다리면서 외로운 시간들을 재밌는 노래를 부르며 보내지요. 그렇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토끼, 까마귀 등 동물친구들이 주인공의 기다림을 함께하거든요. 왕거미줄처럼 하얀 것은 토끼이고, 토끼는 하늘을 날고, 하늘을 나는 것은 까마귀가 되고, 까마귀는 검고, 검은 것은 바위이고, 바위는 높고, 높은 것은 하늘이고, 하늘은 푸르고, 푸른 것은 바다고, 바다는 깊다. 꼬리를 무는 아이의 문답과 함께 날이 저물입니다. 아이의 기다림을 함께하는 친구들의 의미는 바위에서 바다, 하늘로 확장되지요. 그리고 엄마의 마음까지 도달합니다.

아이와 토끼와 까마귀를 모두 가슴에 품고 있는 해녀의 그림으로 끝나는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아이, 토끼, 까마귀, 엄마는 물론 이 세상 모두가 아이의 기다림과 외로움을 함께해주는 친구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운율이 있는 노래 속에서 하나 둘씩 발견되는 친구들을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난 왜 친구가 없지? 고민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를 포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친구처럼 함께 있을 테니까요. **김청연** 기자



**시리둥둥 거미둥둥**

권윤덕 그림 | 창비 | 36쪽 | 값 8,000원



슬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 기다림의 지루함과 쓸쓸함을 반으로 나누는 친구가 보이는 책입니다. "빨간 건 사과, 사과

